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성유형 인식 정도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의 차이

이자명(李紫明)*
김계현(金桂玄)
김장회(金長會)**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성유형 인식 정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ottfredson(1981)의 타협요인 선호도가 국내 청소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상의 진로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한 후, 제시자극(직업)의 성유형 변화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진로타협 과정 차이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유형, 지위, 흥미 세 가지 타협요인 중 직업의 성유형(sex type)을 제시자극으로 설정하고 제시자극을 변화시킨 세 가지 상황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과정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의 성유형인식과 상관없이 40가지 직업 중 무작위로 직업을 선정하여 진행한 진로의사결정 상황(상황 1)에서는 남학생과 전체 집단에서 흥미를 유의미하게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성유형 특성이 강하다고 인식된(매우 여성적/매우 남성적인) 직업을 제외한 상황(상황 2)에서는 남학생은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여학생은 흥미와 성유형을 지위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전체집단에서는 흥미, 성유형, 지위 순서로 선호도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유형 특성이 매우 강하다고 인식된 직업을 반드시 포함한 타협 상황(상황 3)에서는 전체 집단 및 남·여 집단 모두에서 흥미, 성유형, 지위 타협요인 간 선호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시자극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타협 선호에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직업에 대한 성유형 인식 정도가 진로타협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실제와 본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진로타협, 타협요인 선호도, 흥미, 성유형, 지위, 제한-타협이론, Gottfredson

* 제 1 저자,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edukim@gnu.ac.kr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대부분의 진로결정은 타협과정(compromise process)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직업세계의 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개인들의 진로 기대수준은 점점 향상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진로선택에서 타협의 필요성은 더욱 고조되었으며(황매향·김계현, 2001), 이는 다양한 연구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김장희, 2012; 김장희·김계현, 2010; 이기학·조미랑, 2003; Blanchard & Lichtenberg, 2003; Gottfredson, 1981, 1996, 2002; Leung, 1993; Pryor & Taylor, 1986). 개인이 진로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선택과 포기, 검토와 갈등과 같은 복합적인 과정인 만큼, 직업 포부를 결정하는 진로의사결정 상황의 역동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협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진로의사결정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장희, 2012).

Gottfredson(1981)은 진로의사결정상황에서 발생하는 직업포부의 제한(circumscription) 및 타협(compromise) 개념을 설정하면서 성유형(sex type), 지위(prestige), 흥미(interest) 순으로 타협 요인 선호가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 선택은 다른 대안을 포기하거나 제외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를 직업포부의 제한 및 타협으로 개념화한 것이 '직업포부의 제한타협이론'이다(Gottfredson, 1981, 1996, 2002). 타협과정은 이상적이라 생각한 직업과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선택지 사이에서 그 간극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인의 진로포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직업에 대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Gottfredson, 1981). 주요 기준으로는 직업의 성역할 유형, 지위수준, 흥미 등이 있는데, 직업선택시 자신의 직업적 자아개념에 해당하는 직업의 성유형, 지위수준, 흥미가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하게 된다. 결국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직업포부는 조정된다(김장희, 2012). Gottfredson(1981)은 이상의 세 가지 기준을 진로선택시 타협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성유형이며, 다음으로 지위수준을, 흥미는 가장 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더 선호하는 요인으로, 타협하기 힘든 요인을 의미한다. Gottfredson(1981)의 가정에 의하면, 흥미는 가장 덜 선호하는 요인으로 진로타협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협하게 된다.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요인 간 타협 순서, 즉 타협과정 검증을 시도하였으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로 인해 타협이론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김장희, 2012; 김장희·김계현, 2010; 이기학·조미랑, 2003; Blanchard & Lichtenberg, 2003; Leung, 1993; Pryor & Taylor, 1986). 이 과정에서 Gottfredson(1981)의 진로타협이론이 실제 진로상담 장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연구결과와 불일치는 이론 자체의 문제기이기보다 타협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방법상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Pryor & Taylor, 1986). 즉, 효과적인 타협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한계로 지적되었던 타협의 심각성 정도 혹은 제시되는 직업의 특성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진로상담 장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상황을 드러내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의사결정연구는 제시되는 직업자극의 현실성이 낮거나 의사결정을 한 번만 하는 세팅이 실제 진로타협과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김장희, 2009; 이기학·조미랑, 2003; Blanchard & Lichtenberg, 2003; Leung, 1993; Pryor & Taylor, 1986). 이에 국내에서는 김장희(2009)가 국내 실정에 맞는 직업자극을 제시하고, 실제 의사결정과정처럼 여러 개의 직업선택지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실현가능성 낮은 직업을 차례로 포기하면서 현실적인 직업 대안이라는 최종포부에 이르는 타협과정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웹기반(web-based)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이다. 한편, 타협은 직업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타협의 실제 현상을 정확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포기된 직업과 선택된 직업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의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김장희, 2009).

타협이론을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론상의 문제로는 제시 자극(직업)의 타협요인 인식에 대한 정보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직업 선택시 대상 직업의 성유형이 남성 성역할에 맞는 지 또는 여성 성역할에 맞는 지 여부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직업 선택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직업의 성유형 인식과 관련한 논쟁이 활발하고, 가장 먼저 발달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Gottfredson, 1981). 이 이론에 의하면, 성유형은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인 반면 직업에 대한 흥미는 가장 타협하기 쉬운 유연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Gottfredson(1981)의 주장은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는데, 특히 성유형이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면서(이기학·조미랑, 2003; Hesketh et al., 1990; Hesketh et al., 1990) 진로타협과정에서 성유형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커져갔다. 따라서 성유형이 강조되는 직업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진로의사결정 상황을 보다 정교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므로 진로의사결정 상황을 가정할 때, 고려되는 직업의 성유형 인식 정도에 따른 타협과정 차이가 예상된다.

한편 Gottfredson(1981)이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의사결정에 대해 주목할만한 점을 제시하였음에도, 많은 연구가 연구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대학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진로지도 및 상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한 조항·김계현·이자명(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진로지도 및 상담 관련 논문 중 87.1%가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연구 대상이 대학생에 편중되어있다. 진로타협이론이 발달 단계에 따른 진로포부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은 아동이나 성인과 구별되는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교육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진로결정 및 준비를 하는 시기인 만큼(한국청소년학회, 2000),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진로타협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기존에는 입시위주로 중·고등학교 생활이 이루어지고 청소년 진로지도가 부모님과 교사의 진학지도에 편향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자유학기제의 실시 및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 확대 등, 국내 청소년의 건강한 진로발달을 지향하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진로타협과정 또한 주목해야 할 영역이겠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상의 진로의사결정상황을 제시하여 이들의 진로타협과정과 타협요인 선호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직업의 성유형 인식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타협상황을 달리하였으며, 보다 정교화된 타협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청소년은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 어떠한 타협요인 선호를 보이는가.

둘째,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 제시된 직업의 성유형 인식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타협과정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

진로의사결정 분야에서 타협과정은 일찍부터 주목 받았다. Ginzberg 등(1951)은 현실에 맞게 개인의 내적 욕구가 희생되는 과정에서 최적의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이 타협과정이며, 진로결정시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Super(1995) 또한 진로결정을 위한 타협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Super(1995)는 생애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고자 의사결정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택지 제한시키고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 Gottfredson(1981)이 타협과정에 대한 논의를 최초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이후 타협이론 검증은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았다.

진로타협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에서는 가능한 진로대안의 흥미, 지위 등 다양한 측면들 중 어느 것을 포기하고 어느 것을 취할 지를 타협 과정으로 보고, 각 측면들 중 어느 요인이 더 중요

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타협과정의 핵심으로 이해했다(황매향·김계현, 2001). 그렇지만 이론을 검증한 여러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서로 상이하고, 이로 인해 타협과정의 핵심에 대한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타협과정을 보다 정확히 밝히기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장희, 2009; 이기학·조미랑, 2003; Blanchard & Lichtenberg, 2003; Leung, 1993; Pryor & Taylor, 1986).

2. 진로타협이론의 원리

Gottfredson(1981)은 진로의사결정상황에서 발생하는 직업포부의 제한(circumscription) 및 타협(compromise) 개념을 발달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직업포부의 제한 및 타협은 개인의 자아개념 및 선호도 발달에 따라 이루어지며,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3-5세경에는 크기 및 힘에 대한 선호가, 6-8세 사이에는 성역할 선호가 발달하며, 사회적 가치(9-13세) 및 개인 내적인 독특한 자아개념은 14세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Gottfredson, 1981). 이러한 발달은 인지적 발달 및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진로타협 시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 세 가지가 제안되었다.

세 가지 주요 타협요인은 직업의 성유형(sex type), 지위(prestige), 흥미(interest) 등이다. Gottfredson(1981)은 이 세 가지 요인은 그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진로의사결정 타협 시 성유형, 지위, 흥미 순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중요한 요인일수록 가장 마지막까지 고수하며, 이는 가장 마지막에 타협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즉, 덜 중요한 요인일수록 진로타협과정에서 빨리 타협하게 된다. 이처럼 타협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요도를 선호도(preference)라 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타협과정 및 요인 선호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장희, 2012; 김장희·김계현, 2010; 이기학·조미랑, 2003; Blanchard & Lichtenberg, 2003; Leung, 1993; Pryor & Taylor, 1986; Gottfredson, 1981, 1996, 2002).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장을 지지하는 반면 이와는 상반되는 연구결과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등, 타협과정에 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Gottfredson(1981)의 진로타협이론이 실제 진로상담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결과의 불일치는 이론 자체의 문제기이기보다 타협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방법상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Pryor & Taylor, 1986).

3. 타협과정 검증 연구의 다양화

실제로 진로 타협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연구가 시행되는 목적 및 필요성

으로 기존 타협 연구의 방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타협 연구방법을 모색하였으며(Holt, 1989; Leung, 1993; Hesketh et al., 1990; Hesketh et al., 1990; Blanchard et al., 2003; 이기학·조미랑, 2003; 김선희, 2006), 이에 따라 강제 직업 선택방식(forced-choice format), 가상의 직업조건 선택(fuzzy graphic rating scale), 컴퓨터 활용 직업조건 선택(policy capturing procedure), 카드 분류(card sort), 컴퓨터 활용 직업분류, 대학전공 선택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었다(김장희, 2009). Gottfredson(2005) 자신도 자신의 이론을 반박한 연구들의 방법상의 문제를 거론하였듯이, 기존 타협연구의 일관되지 못한 결과는 타협과정을 확인하는 연구 도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타협과정을 확인함에 있어 직업선택의 현실성이나 직업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조사 시 사용한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장희, 2009; Leung, 1993; Hesketh et al., 1990; Blanchard et al., 2003). 따라서 효과적인 타협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한계로 지적되었던 연구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처음 제시된 타협이론(1981)과 달리 수정 제시된 이론(Gottfredson, 1996, 2002, 2005)에서 Gottfredson은 진로의사결정상황이 타협의 정도(degree)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각 상황마다 타협 요인의 상대적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타협의 정도라는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 달라지고 다양하게 설정된 진로의사결정상황이 오히려 수정타협이론의 검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김장희, 2009).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실제 진로상담 장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진로의사결정상황을 드러내는 연구방법이 주목받는 실정이다. 국내 실정에 맞는 직업자극을 제시하고 여러 단계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낮은 직업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직업 대안이라는 최종포부에 이르는 타협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모의실험법(김장희·김계현, 2010; Blanchard & Lichtenberg, 2003),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적 직업조건 선택방식(김선희, 2010; Pryor & Taylor, 1986), 카드분류(Holt, 1989)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 상황을 보다 정교화한 후, 연구 참여자의 타협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개별 타협요인에 대한 고려 수준이 직업선택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이론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요인인 성유형 조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직업 선택상황을 직업의 성유형 인식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택지가 제시된 상황(상황 1), 성유형 특성이 강조된 직업을 제외한 선택지 안에서 결정하는 상황(상황 2), 성유형 특성이 강조된 직업을 반드시 포함한 진로의사결정 상황(상황 3)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 참여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정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1) 연구대상

경기도 및 강원 지역에 소재한 국, 공립 중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생 각 두 곳에서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은 교내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면면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들은 만 14-17세로 연구자가 협조를 요청한 교사의 소개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중학생 96명과 고등학생 66명으로 남녀 비율은 남학생 70명, 여학생 92명이다.

<표 1> 연구대상

	중	고	계
남	38	32	70
여	58	34	92
계	96	66	162

2) 자료수집 방법

연구 대상자들은 웹상에 마련된 타협연구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형식으로 참가하였다. 타협 연구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가상의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으로, 김장희(2009)의 박사 논문에서 제작된 것을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타협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김장희·김계현, 2009)에서 제시된 직업군(표 2)의 성유형, 지위, 흥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다. 조사한 인식 수준은 이후 결과분석에서 포기한 직업과 최종적으로 선택지로 남은 직업의 세 가지 요인(흥미, 성유형, 지위) 간 차이를 분석할 때 활용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성유형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직업을 별도로 추출하여 연구의 상황 1과 2에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유형 특성이 강한 것으로 지각된 직업은 총 5가지이다(표 3).

이상의 직업들을 투입하여 본 연구의 타협 프로그램은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한다. 우선 첫 번째 상황에서는 40개의 직업(표 2) 중 무작위로 제시되는 다섯 개의 직업을 단계적으로 포기하는 진로의사결정을 실행한다(상황 1). 두 번째 상황에서는 40개의 직업 중 성유형 특성이 매우 강하다고 인식되는 직업으로 선정된 5개의 직업을 제외시킨 후, 단계적인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하였다(상황 2). 상황3은 상황2와는 반대로 원하지 않는 직업을 제외시켜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유형 인식이 극단적인 직업을 한 개 이상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상황 3).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상황에 따른 각각의 타협과정을 분석하였다. 실험 마지막 단계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에 제시된 직업은 총 40가지로 김장희와 김계현(201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7'에서 제시한 170가지 직업명을 성유형 비율, 사회적 지위 수준 및 홀랜드 흥미 유형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제시된 직업에 대한 인식수준이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잘 알고 있는' 수준인 3.0이상을 나타낸 직업 40개를 선정한 것이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이들 직업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여자가 특정 직업명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바로 해당 직업에 대한 설명창이 나타나 직업설명을 읽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하였다.

<표 2> 타협연구 프로그램용 직업 목록

-
1. 화가 및 만화가 2. 한복사 3. 가수 4. 연주가 5. 운동선수 6. 프로그래머 7. 경호원
 8. 경찰관 9. 자동차정비원 10. 비행기조종사 11. 제과사 및 제빵사 12. 판사 및 검사
 13. 외교관 14. 광고 및 홍보전문가 15. 영화감독 및 방송연출가 16. 번역가 17. 기자
 18. 아나운서 19. 쇼핑호스트 20. 전문비서 21. 상담전문가 22. 성직자 23. 비행기승무원
 24. 상품판매원 25. 메이크업아티스트 26. 일반공무원 27. 연기자 28. 모델 29. 영업원
 30. 중·고등학교 교사 31. 유치원 및 초등학교사 32. 대학교수 33. 의사 34. 간호사
 35. 물리치료사 36. 치과위생사 37. 컴퓨터 공학기술자 38. 컴퓨터프로그래머
 39. 가전제품 수리원 40. 농업인 및 축산인
-

2. 연구과정

1) 제시된 직업에 대한 성유형 인식 조사 및 성유형 특성이 매우 강하다고 인식된 직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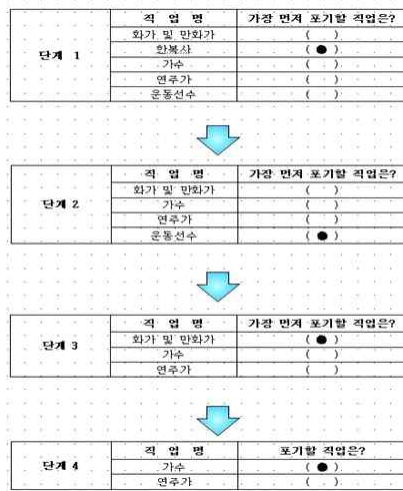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접속한 프로그램 1단계에서 제시 자극인 40개의 직업목록 각각에 대한 성유형 인식 정도를 1-7점(매우 여성적-매우 남성적)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으며, 그중 대상 중·고등학생들이 6.0이상 or 2.0이하로 답한 직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직업은 참가자들이 해당 직업에 대해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또는 여성적인 직업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직업은 모두 5가지로 매우 남성적인 직업으로는 프로그래머(6.01), 자동차정비원(6.11)이 나왔으며, 매우 여성적으로 인식된 직업으로는 비행기 승무원(2.0), 메이크업아티스트(2.0), 간호사(2.0) 등이 있다.

<표 3> 성유형 특성이 강하다고 인식된 직업

남성적인 직업	여성적인 직업
프로게이머(6.01) 자동차정비원(6.11)	비행기 승무원(2.0) 메이크업아티스트(2.0) 간호사(2.0)

2) 타협과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대한 성유형 인식 정도에 따라 연구참가자의 진로 타협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상황에서 . 우선 표 2에서 제시한 40가지 직업 중 상황 조건에 맞게끔 프로그램에 의해 선정된 5개의 직업을 대상으로 총 4단계에 따라 최종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각각의 단계에서 포기할 직업을 선택하면 그 다음 장면에서는 포기한 직업을 제외한 선택지가 제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는 4단계에 걸쳐 최종적으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한다. 연구 과정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결과분석에서는 포기한 직업과 최종적으로 선택지로 남은 직업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직업 포기 과정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최종 선택된 직업에 부여된 성유형 점수, 지위 점수, 흥미 점수를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포기된 직업이 아닌 선택된 직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진로타협이론(Gottfredson, 1981, 1996)이 주목하는 바는 특정 직업이 포기되는 이유이며, 이를 통해 타협된 요인의 상대적 선호도를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특정 직업을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의사결정은 직업대안의 상호비교과정을 통해 타협요인의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때, 포기한 직업과 선택된 직업의 요인별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타협행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포기된 직업과 최종 직업 간의 차이를 비교하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가한 프로그램이 제시한 진로의사결정상황에서 가장 먼저 포기된 직업과 최종적으로 남겨진, 즉, 최종 선택한 직업과의 요인별 차이 점수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요인 간 상호비교를 통한 요인별 차이 점수를 통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응표본 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통해 평균 점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타협 요인 간 선호도 차이의 유의미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요인 간 점수 차이는 아래 <표 4>과 같으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 분석예시

성별	직업	1차 포기직업			최종 선택 직업			최종 - 1단계			
		성유형	지위	흥미	직업	성유형	지위	흥미	성유형	지위	흥미
남	경찰관	7	5	1	가수	4	1	4	-3	-4	3
									2위	3위	1위
여	번역가	3	4	6	영화 감독	5	6	7	-2	2	1
									3위	1위	2위

위 <표 4>은 가장 먼저 포기한 직업과 최종 남겨진 직업의 요인별 차이를 계산한 결과이다. 각 직업별 성유형, 지위, 흥미 점수는 참여자가 연구 진행시 응답한 점수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우선 남학생 사례의 경우를 보면, 최종 선택된 직업인 가수는 가장 먼저 포기한 경찰에 비해 여성적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3점으로 계산하였다. 만약 최종 선택 직업이 경찰이고 가장 먼저 포기한 직업이 가수였다면 두 직업의 성유형 요인 간 차이는 3으로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여학생 사례의 경우 최종 선택한 직업과 가장 먼저 포기한 직업 간 성유형 요인 점수 차이는 2점인데 자신의 성유형과 반대되는 직업을 선택했으므로 -2로 계산한다. 지위 및 흥미에서도 지위수준이 낮거나 흥미가 낮은 직업을 선택할 경우 두 직업의 요인 차에 마이너스(-)를 붙이도록 한다. 위 남학생 사례의 경우 세요인 각각의 점수를 보고 가장 큰 점수의 요인이 타협요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즉, 진로타협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는) 요인으로 해석한다. 개인의 점수가 아닌 집단 점수를 계산할 경우에는 집단에 속한 개인의 성유형, 지위, 흥

미의 점수 차이로 구한 요인별 점수를 계산한 뒤 합산하여 그 평균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상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진로타협 상황을 설정하고 각각의 타협요인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첫 번째 상황에서는 표 2의 40가지 직업에서 무작위로 5개의 직업이 추출되었다(상황 1). 첫 번째 상황은 성유형인식이 매우 강조된 직업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통제집단이다. 두 번째 상황은 표 2의 40개 직업 중, 직업의 성유형 인식이 극단적으로 나온, 즉 직업의 성유형 특성이 강하다고 인식된 5개 직업(표 3)을 제외한 35개의 직업 중에서 무작위로 5개의 직업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다(상황 2). 이 경우에는 성유형 특성이 강하다고 인식된 직업 5개를 제외한 35개 직업 중에서 프로그램이 무작위로 선정된 직업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에서는 성유형 특성이 강하다고 인식된 직업(표 3)이 5개의 선택지 중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다(상황 3). 본 연구는 직업의 성유형 인식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설계한 연구였기에 실험에서 제시되는 5가지 직업 모두를 성유형 특성이 강하다고 인식된 직업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한 개 이상을 섞음으로써 다양한 선택지 중, 성유형 특성이 강한 직업이 포함될 때 보이는 타협 선호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유형 특성이 강한 직업이 포함된 상황이 성유형 특성이 강한 직업으로만 구성된 조건보다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판단하였다.

IV. 결과

1. 상황 1 - 40가지 직업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직업을 대상으로 한 진로의사결정 상황

성유형인식과 상관없이 선정된 40가지 직업군 중에서 무작위 추출한 직업을 대상으로 한 타협상황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상황 및 타협과정의 차이는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과 전체 집단에서는 흥미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으며, 성유형과 지위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학생 집단의 경우, 성유형, 지위, 흥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상황 1 - 성유형인식과 상관없이 40가지 직업 중 무작위로 선정된 직업을 대상으로 한 진로의사결정 상황

	상황 1		
	성유형	지위	흥미
	<i>M(SD)</i>	<i>M(SD)</i>	<i>M(SD)</i>
남	0.32(2.19)	0.19(1.85)	1.05(1.75)
여	0.64(2.17)	0.28(2.04)	0.79(1.95)
전체(남+여)	0.47(2.18)	0.23(1.94)	0.92(1.85)

타협요인들간의 평균 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집단과 남녀 각각의 집단에서 대응표본 검증(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상황 1 - 성유형인식과 상관없이 40가지 직업 중 무작위로 선정된 직업을 대상으로 한 타협과정 차이

	상황 1		
	흥미-성유형	흥미-지위	성유형-지위
	<i>t(p)</i>	<i>t(p)</i>	<i>t(p)</i>
남	-2.975(.03)*	-5.021(.002)**	-1.73(.06)
여	-2.03(.05)	-2.64(.05)	-2.36(.05)
전체(남+여)	-2.692(.008)**	-4.865(.000)***	-2.13(.05)

* $p < .05$, ** $p < .01$, *** $p < .001$

2. 상황 2 - 성유형 특성이 강조된 직업을 제외한 진로의사결정 상황

상황 2는 성유형 특성이 강하다고 인식된 직업을 제외한 35가지 직업만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진로의사결정 타협상황이다. 상황 2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표 9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성유형 특성이 강조된 직업이 제외된 상황에서는 남, 여 집단뿐만 아니라 전체 집단에서도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표 7> 상황 2 - 성유형 특성이 강조된 직업을 제외한 진로의사결정 상황

	상황 2		
	성유형	지위	흥미
	<i>M(SD)</i>	<i>M(SD)</i>	<i>M(SD)</i>
남	0.13(1.94)	0.05(2.03)	1.02(1.89)
여	0.73(1.89)	0.01(2.06)	0.80(1.88)
전체(남+여)	0.43(1.93)	0.03(2.04)	0.91(1.89)

구체적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흥미를 유의미하게 높게 고려한 반면, 성유형과 지위 간에는 차

이가 없었다. 여성의 경우 지위를 가장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흥미와 성유형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에서는 흥미, 성유형, 지위 순으로 고려하였는데, 세 요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8).

<표 8> 상황 1 - 성유형 특성이 강조된 직업을 제외한 진로타협 과정의 차이

	상황 1		
	흥미-성유형	흥미-지위	성유형-지위
	<i>t(p)</i>	<i>t(p)</i>	<i>t(p)</i>
남	3.432(.001)**	4.126(.000)***	1.22(.07)
여	0.989(.23)	3.234(.002)**	2.662(.009)**
전체(남+여)	2.714(.007)**	5.194(.000)***	2.103(.037)*

* p<.05, ** p<.01, *** p<.001

3. 상황3 - 성유형 특성이 강조된 직업을 반드시 포함한 진로의사결정 상황

상황 3은 성유형 특성이 강하다고 인식된 직업을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1번 이상 포함한 타협상황이다. <표 9>와 <표 10>에서 제시하였듯이, 진로타협시 성유형 특성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남녀 모두, 그리고 전체 집단에서 세 가지 요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상황3 - 성유형 특성이 강조된 직업을 반드시 포함한 진로의사결정 상황

	상황 3		
	성유형	지위	흥미
	<i>M(SD)</i>	<i>M(SD)</i>	<i>M(SD)</i>
여	0.94(2.40)	0.42(1.82)	0.77(1.83)
남	0.43(2.45)	0.25(1.73)	1.02(1.81)
전체(남+여)	0.65(2.43)	0.32(1.76)	0.91(1.81)

타협요인들 간의 평균 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검증 (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한 결과, 어느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상황 1 - 성유형 특성이 강조된 직업이 반드시 포함한 타협과정의 차이

	상황 1		
	흥미-성유형	흥미-지위	성유형-지위
	t(p)	t(p)	t(p)
남	-0.78(.64)	-1.00(.05)	.92(.13)
여	1.30(.25)	2.13(.07)	1.01(.06)
전체(남+여)	1.52(.07)	1.07(.07)	2.00(.10)

* p<.05, ** p<.01, *** p<.001

4. 직업의 성유형 인식에 따른 타협과정 차이

이상에서 분석된 타협 요인의 상대적 선호도를 요약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타협 요인별 상대적 선호도

	상황 1	상황 2	상황 3
남	흥미>성유형=지위	흥미>성유형=지위	흥미=성유형=지위
여	흥미=성유형=지위	흥미=성유형>지위	성유형=흥미=지위
전체	흥미>성유형=지위	흥미>성유형>지위	흥미=성유형=지위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상황 및 집단별 분석에서 일관되게 흥미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유형 특성이 강조된 직업이 반드시 포함된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요인들 간 선호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성유형 특성이 뚜렷한 직업이 반드시 포함된 상황 3에서 세 가지 요인 간 차이가 적어지는 것은 상황 1이나 상황 2에서와 달리 성유형에 대한 고려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흥미 및 지위의 중요도 간에 차이가 적어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직업의 성유형에 대한 고려를 적게 할 수 있는 상황 2의 경우, 성유형이 지위보다 유의미하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성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기 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종합하면 제시자극이 달라지는 상황 1, 2, 3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타협 과정이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진로의사결정 타협상황 도구를 설정할 경우, 제시자극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는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성유형 인식 정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가상의 진로의사결정 상황을 직업의 성유형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제작한 후, Gottfredson(1981)의 타협요인 선호도가 국내 중·고등학생 청소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진로타협 과정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의 성유형인식과 상관없이 40가지 직업 중 무작위로 5개의 직업을 선정하여 진행한 진로의사결정 상황(상황 1)에서는 남학생과 전체 집단에서 흥미를 유의미하게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성유형 특성이 강하다고 인식된(매우 여성적/매우 남성적인) 직업을 제외한 상황(상황 2)에서는 남학생은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여학생은 흥미와 성유형을 지위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전체집단에서는 흥미, 성유형, 지위 순서로 선호도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유형 특성이 매우 강하다고 인식된 직업을 반드시 포함한 타협 상황(상황 3)에서는 전체 집단 및 남·녀 집단 모두에서 흥미, 성유형, 지위 타협요인 간 선호도 차이가 없었다. 상황 1과 2에서는 대부분 흥미를 성유형이나 지위보다 중요시한 반면, 성유형 특성이 강조된 진로선택상황에서는 흥미와 성유형 및 지위 간에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제시자극의 인식된 성유형 특성을 달리한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타협 선호에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대한 성유형 인식 정도가 진로타협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 1, 2는 성 유형이 가장 중요하고 흥미는 가장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초기 타협이론(Gottfredson, 1981)과는 다른 결과이고 수정 타협이론의 주장(Gottfredson, 2002, 2005)과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아직 현실적으로 직업세계를 경험하기 전인 중·고등학생인 만큼 현실적인 이득과 관련된 지위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인 흥미를 가장 중요시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는 아직 직업흥미를 키우고 진로포부를 만들어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특징과 연결이 되며, Super(1995)의 진로발달 이론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uper(1995)가 강조하듯이, 아동청소년은 성장기에 환상기-흥미기-능력기를 거치고 탐색기에 들어서며 현실적인 고려사항들까지 관심을 확대시킨다. Gottfredson(1981)이 초기 성장기에 형성된 성유형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일찍이 발달하는 흥미의 중요성을 보이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시, 직업포부 탐색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의 흥미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의 관여 정도가 높고 입시를 강조하는 환경에서는 진로결정자 자신의 흥미가 간과되기 쉬운 만큼 이에 대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된다.

한편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는 직업의 성유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와는 배치되게

일부 결과에서 지위 요인보다는 성유형을 중요시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최근의 진로결정자들이 비전통적인 성역할이 요구되는 직업세계에 진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의 성역할 인식이 뿌리 깊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직업을 바라보던 기존의 성 고정관념적인 시각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진로상담자들이 청소년 진로 지도 및 상담시 학생의 흥미와 함께 성역할 인식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더불어 직업의 지위 요인에 대한 고려가 낮은 것은 아직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힘든 청소년의 특성으로도 해석되는 만큼, 진로지도 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직업의 성유형 특성 정도를 변화시킨 후 타협과정 차이를 살폈다.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타협요인 선호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곧 타협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이 단계적이기보다 1회에 그쳤고, 제시 자극(대상 직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이기학·조미랑, 2003; Pryor & Taylor, 1986).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타협 관련 연구에서 의사결정 상황 설정에 대해 보다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진로의사결정상황을 보다 정교화 시켜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였고 이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의사결정 시 주어진 선택지 중 직업의 성역할 인식 정도에 따라 타협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상황 설정 시 직업의 성유형 뿐만 아니라 지위, 흥미 등의 요인의 영향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타협이론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국내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연구에 참여한 표본의 수와 지역에서 제한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사결정에 사용된 직업들은 참여자가 실제로 직업포부로 고려한 직업이 아니라 무작위로 추출된 것들인 만큼, 가상의 직업을 대상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와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 자신의 진로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의사결정 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실험 연구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제시자극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실 세계에의 일반화 능력에 대한 고민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개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은하, 2012). 이상의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연구 대상을 다양화시킨 결과가 보다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직업의 가치, 안정성 등 개인이 중요시하는 타협요인을 다양화해야한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만큼(김장희, 2012; 김장희·김계현, 2010; Blanchard & Lichtenberg, 2003) 이와 관련한 학문적 관심이 기대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선희(2006). 역할지향성과 타협상황에 따른 여성의 진로선택: 타협요인 선호도 비교. 박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 김은하(2012). 상담학 연구에서 실험 패러다임의 적용. **상담학연구**, 13(5), 2119-2133.
- 김장희(2009).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따른 Gottfredson의 타협요인 선호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장희(2012). 진로 타협과정의 차이: 초, 중, 고, 대학생 비교분석. **직업교육연구**, 31(1), 135-153.
- 김장희, 김계현(2009).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초, 중, 고, 대학생 비교분석. **상담학연구**, 10(1), 323-340.
- 김장희, 김계현(2010).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따른 타협과정의 차이. **상담학연구**, 11(2), 755-773.
- 김미연, 방희정(2005). 진로타협과정에서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선호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173-188.
- 이기학, 조미랑(2003).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 보이는 남녀 간 선호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1-13.
- 오치선, 이복희(2005).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3), 93-113.
- 한국청소년학회 편(2000). **청소년학 총론**. 서울 : 양서원.
- 이기학(2005). 진로선택타협과정에서 보이는 선호도에 대한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연구. **상담학연구**, 6(3), 849-859.
- 황매향, 김계현(2001).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11-124.
- 황매향, 김계현(2003). 대학입시 의사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타협유형. **상담학연구**, 4(1), 19-36.
- 조향, 김계현, 이자명(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4), 2099-2113.
- 정주리, 이기학(2007).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의 선호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61-174.
- Blanchard, C. A., & Lichtenberg, J. W. (2003).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A test of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250-271.
- Brown, D., & Associates. (2002).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Gati, I. (1993). Career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16-424.

- Gati, I., Hounmner, D., & Aviram, T. (1998). Career compromises: Framings and their impli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505-514.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th ed., pp.179-232). San Francisco: Jossey-Bass.
- Gottfredson, L. S. (2002).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compromise, and self-creation*. In D. Brown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4th ed., pp.85-148). San Francisco: Jossey-Bass.
- Gottfredson, L. S. (2005). *Applying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In Brown, S. D. & Lent, R. W.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pp.71-100). John Wiley & Sons.
- Hesketh, B., Durant, C., & Pryor, R.(1990). Career compromise: A test of Gottfredson's(1981) theory using a policy-capturing proced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1), 97-108.
- Hesketh, B., Elmslie, S., & Kaldor, W.(1990). Career compromise: An alternative account to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49-56.
- Holt, P. A. (1989). Differential effect of status and interest in th process of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42-47.
- Leung, S. A. (1993).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replication study with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88-193.
- Pryor, R. G. L., & Taylor, N. B.(1986). What would I do if I couldn't do what I wanted to do? Investigating career compromise strategies. *Australian Psychologist 21*, 363-376.
- Super, D. E. (1995). *Life Roles, Values, and Careers : International Findings of the Work Importance Study*. Jossey-Bass.
- Taylor, N. B., & Pryor, R. G. L. (1985). Exploring the process of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171-190.

* 논문접수 2015년 11월 3일 / 1차 심사 2015년 12월 7일 / 2차 심사 2015년 12월 24일/ 게재승인 2015년 12월 28일

* 이자명: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진로상담 및 여성상담, 청소년상담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E-mail: jmyil012@mju.ac.kr

*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Oregon에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카운슬링의 실제,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 연구 등이 있다.

* E-mail: kayhkim@snu.ac.kr

* 김장희: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학교상담, 진로상담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 E-mail: edukim@gnu.ac.kr

Abstract

The Difference of the Compromise Process in Korean Youths According to the Perceived Sex Types of Occupations

Yi, Jamyoun^{*}
Kim, Kay Hyon^{**}
Kim, Jang-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ompromise factor preference and the difference of compromise process in Korean youths according to perceived sex types in occupations. For the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the Gottfredson's decision making theory, and used web-based programs including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process. Subjects of the study a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the male group the whole group think interests most important than sex types and prestiges of occupations. Second, the male group thinks interests most important than sex types and prestiges. The whole group shows preference difference in the order of interests, sex types and prestiges. The female group, on the other hand, prefers interests and sex types to prestiges. Third, in the situation, which included an occupation that was perceived to have strong sex types, all of three group do not show preference differences. Finally, since difference of compromise process occurs according to suggested stimulus, sensitiveness of measurements are required for the future studies.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future research and practices are suggested.

Key words: Career Compromise of Korean Youths, Compromise Preferences, Interests, Sex types, Prestiges, Circumscription-Compromise Theory, Gottfredson

* First author,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